

제자훈련 소금과 과정을 그리고

‘상한 감정의 치유’를 읽고 나서

황정연 (대학부 1학년)

‘그리스도인은 상처가 없다.’ 나는 이 말이 정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상처가 생길까? 내 마음을 아시고 만지신다면데 그런데도 마음이 아플까? 몇달 전만 해도 난 고3이었다. 대학이라는 것, 공부라는 것, 인간관계, 삶의 의미가 왜해되는 시기였다. 왜 사는 것일까, 너무 사는 것이 힘든데 ...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구석으로 몰아가는 듯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었다. ‘정말 이게 뭐야!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랑하고 화평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 평안해야 하는데 ...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하는데 ...’ 하는 생각으로 나를 질책하며, ‘그래 난 평안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 세상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것은 그리

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 하고 위선과 자기 합리화로 난 그리스도인임을 자신하며 살았었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하나님 나를 보세요. 오늘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이웃들을 사랑했구요. 남들이 나를 미워해도 용서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님 있잖아요!’ 하면서 말았다.

그러면에도 괴로움이 많았다. ‘나를 싫어하거나 악속에 나오지 않는거야. 나를 좋아했다면 왜 안나오겠어?’, ‘지금 나랑 있는 것이 싫는데 그냥 불쌍하니까 같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닐까?’, ‘나만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도가 되지 않을까’ 등등.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난 사랑할 수 있어’ 하며 사람들을 내게 다가갔다. 그 결과는 당연했다.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는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지 수 없었다는 것. 가짜나 가가려 한 만큼 상처도 많이 받았다. 완벽주의자이기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해!’란 모든 일을 잘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능력있는 사람, 잘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

럼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실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나를 좋아하겠지.’ 그러나 나의 생각들은 무너졌다. 만 죽을 모르고 끝없이 추구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난 나로 인해 상처받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서 받는 상처보다 컸었다. 것을 깨달았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전에는 그렇게 인간됨을 써서 고치려고 했던 나의 단점들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난 무엇무엇이 부족해. 하지만 난 행복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예수님도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일 때는 힘들어 하셨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다 하셨다. 조건이 있다. ‘내 몸과 같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난 주위 사람들에게서 고민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 수 있을까?’ 하며 힘들어 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 사랑은 나를 믿고 이야기했을텐데 난 아

무 도움도 안되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건 칼로 베었을 때, 만창고를 붙이는 것과는 다르다. 남은 사랑해 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나의 주변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지금 자신있게 평안을 말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는 있는 평안. 난 이제 내 삶의 평안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것을, 그리고 20년을 살아오면서 내 삶에서 보인 증거가 너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상한 감정의 치유〉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처 속에서 지낸 나의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힘든 그 모습들과 수면의들, 제자훈련을 통해 올바른 자아상 발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에 날마다의 삶이 예화가 되고 성화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애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성경탐독

진짜 민수기는 채미있

장석진

대학부 7학년

민수기는 그나마 겨우겨우 레위기까지 읽은 사람들을 많이 포기해 만들었다? 처음부터 많은 숫자와 각 지파에 대한 예기들만 쏙 읽었다. 저의 일과 대조해보자. 조금 급하게 읽느라 해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지파별로 직접 숫자를 배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속서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 음. 이따가 다시 코트 2 쓰는 것이냐? 이단이다. 푸하하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입태하였나니 ...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끌이 행할지언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죽지 마옵시고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11:12-14)

참으로 연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지도자를 봅니다. 홍해를 가르고 거대한 민족을 이끄는 멋진 보이는 이 지도자는 이런 연약함을 또한 지니고 있었습니

다. 이 말씀을 보면 팀장으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나도 역시 모세와 같은 마음이라라는 것. 또 한편으로 참으로 팀장으로 팀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마도 이때부터 팀을 위한 지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조원들은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

26-29절을 보면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데 회막에 나아가지 않은 두 사람이 나머지 사람과 똑같이 애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네요. 금하게 해달라고요 ...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니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세는 생각입니다. 왜 회막에도 안 간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인지, 역시 모든 방법은 하

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주십니다(11:20).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방법은 그냥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일 때가 더 많음을 봅니다. 그러고 고기가 아직 있사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 전도하사 ... 큰 재앙.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약간 죄를 지어봅니다. 그런데 당장 벌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점점 허물어집니다. 아주 코에서 넘쳐듯 자신의 유익과 재미만을 위해서 즐깁니다. 우리는 이 즐거움에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 재미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장 심판이 내리지 않으니까요. ‘어, 아직 없으시네?’라며 점점 막 가봅시다. 하지만 결국 결과는 이 미나와 있습니다. 얼마 후 땅까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때론 엉뚱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되까지 내버려 두십니까?’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라고 조르고 매달려놓고 ...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때가 더 무서운 겁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계속되고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의 대학부를 봅니다. 큰일도 없고, 별 이유도 없고, 비전도 없고, 큰 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를 읽으며 또 하나님 눈에 들어온 이야기는 아론과 모세에게 술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라 자손은 (16장) 대들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 아래로 떨어지고 땅이 합하여 땅에게 먹혀 버립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회중에서 스스로 높이느뇨”(16:3)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이 있다며 대적인 모습. 맞지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이 계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가버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회중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하지만 그들 결정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다만 이 것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꼭 위의 모든 것을 순종만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설부터 시작하고 천지 말자는 겁니다. 왜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하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서라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방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GBS할 때 팀원들이 많이 안 나왔더군요. 하하. 주제가 충실하고도 그런 것일까요? 음. 그 주제를 삼은 사람들이 안 나왔던거 같습니다. 방황하는 지체들이 속히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고 친구들을 만나니 이런 하나님 생각, 하나님 일, 하나님을 배우는 것 등등이 비교가 되었나 봐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메뚜기’로 자신을 본 것이 아닌지. 그래서 유일조와 하나님께 대한 유약이 없는 것인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다가 며칠이건 갈 가나안 땅을 38년이나 헤매고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던 세대는 다 죽습니다. 땅아에서 있었던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현실을 보며, 주위를 보며, 친구들을 보며, IMF라는 상황을 보며 난 자신이 메뚜기처럼 느껴진 건가요? 당신은 메뚜기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순서를 바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레위기 17:14를 떠올리십시오. 자신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 ... 이 순서에 따라 믿음으로 살면 상황은 순식간에 ‘우리의 밥’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을 먹읍시다. 하나님의 일엔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는 방법을 잊지 맙시다. 38년을 해낸 민족이 있습니다.

당신은 메뚜기야만, 밥 잘 먹는 일꾼?

목회와 신앙



“목사님 이 꽃 받으세요”

이 홍 성(목사, 1교구·사랑부·봉사위원회 지도)

“목사님 이 꽃 받으세요.” 몇해 전 주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본다. 한 청년이 선교관 지하1층에서 올라오는 나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이었다. 안개꽃이 아른아른하는 꽃다발 속에는 예쁜 가네이션 5송이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얼떨결에 꽃을 받고 보니 꽃을 준 청년은 지난번에 섬겼던 교구의 성도이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꽃다발을 가지고 교역자실에 돌아오는 나에게서는 많은 생각이 났었다. 주일 하루의 인과를 생각없이 마친 나는 저녁이 되어서야 그 청년의 집으로 전화를 할 수 있었다. “오늘 나에게 준 선물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하에서 올라올 줄 알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물을 주었습니까?” 그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하였다. “나에게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고 여겨 지기 싫어다녔어요. 마침 그곳에서 만나 인 얼마나 반가웠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갖는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청년의 마음을 생각해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기에 인생의 모든 명예도 영광도 다 버린 지 오래다. 오직 이 길을 걸어가면서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이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이기는 열매로 맺히지 때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볼 뿐이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 뿐인 순간에도. 때로는 스스로의 직업적인 타성으로 머뭇거릴 때도 있다. 그러나 인생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목자의 길을 자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열드리게 된다. “누가 약한 내가 약하지 아니하

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고후 11:29)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성도들이 순간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오는 교역자의 노고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다. 교회의 형편상 때때로 교구가 옮겨지기도 하고 교육 부서가 바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 “목사님 정말 고마워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대로 응답을 받았습다.” 감사합니다.

나는 중언교회와 정신지체부서인 사랑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처음 중언교회에 부임할 때 지도목사로서 중언복지관의 영혼들을 함께 돌보아야 하는 중언복지관에서 만나서 함께 해 보았다. 사랑부의 영혼들을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마음은 흐르는 눈물밖에는 달리 아무런 표현이 필요없었다. 지난해부터는 봉사위원의 지도목사로서 중언복지관의 영혼들을 함께 돌보아야 하는 중언복지관에서 만나서 함께 해 보았다. 사랑부의 영혼들을 다시 만나서 함께 해 보았다. 사랑부의 영혼들을 다시 만나서 함께 해 보았다. 사랑부의 영혼들을 다시 만나서 함께 해 보았다.

오늘날 비록 현대 교회가 점점 대형화 되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인격적 관계가 점점 미약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잊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성도를 향한 주의 종들의 중언복지관이기에 이러한 수고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자라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는 열마나 소망스러우니 주일 중언교회는 적어도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사명으로 든든히 뿌리내리는 교회라고 나는 생각한다.

부활절을 맞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부활의 아침

김 동 하(목사, 대학부 지도)



지장을 잃고 방황하는 가슴서린 남편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빈 지갑에 마음 졸이며 동전을 헤아리는 아내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얼마, 아빠를 생각하며 허전한 주머니에서 손가락을 뚫지락거리는 아이들은 부활은 어떤 의미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혹시 갑자기 찾아오는 IMF의 고통스러움에 부활의 아침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부활엔 더 극한 고통이 있었음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던 어두운 죽음의 터널을 지나오셨다. 그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과 비호할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셨다. 아니 빼앗기셨다. 추위를 막아 주던 겹옷을 빼앗기셨고, 하나님편인 생명이자 빼앗기셨다. 그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겪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심한 고통스러움을 지나오셨다. 언제든지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그래서 부활은 가장 심한 절망 중에서 부르는 영원한 안식을 향한 길의 노래이다. 죽음을 넘어서 새 생명이 이르는 영원을 소유하는 참된 기쁨의 찬송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셨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언젠가 그 끝에 이르게 되리라. 당장엔 자랑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없지만 곧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리라. 어두운 밤, 물이치는 폭풍우 후에 희망의 속삭임이 있는 찬란하고 평온한 새 날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마치 주님께서 죽음의 끝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하셨듯,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부요함에 이를 날이 있리라! 영원으로 향하는 하박국의 노래를 들으며, 가장 귀한 것을 불드는 영원을 여는 아침을 맞이하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리라 또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신앙성당

크리스찬 사이언스 (The Science of Christ)

정 현 민

(목사, 16교구·장년부·법조인전도회·도서장회 지도)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창시자 메리 베이커 에데는 엄격한 예절론을 믿는 회중교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가 두번째 남편과 별거하던 해인 1866년에 제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간 지병인 척추 척추염이 재발하여 7년간의 투병생활을 할 당시에 약을 쓰지 않고도 놀랄 만한 치유를 하고 있다는 쿠퍼바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살리치료 요법에 의존하여 효과를 보았는데 이로 인해서 에데는 그의 열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4년 후 그녀는 독자적인 치료방법을 만들어 ‘영적 과학 질병치료’라는 공개 강의까지 하였는데 그것은 최면술과 안수에 의한 방법이었습다. 이 치료법은 훗날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과학과 건강’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이 영감된 것처럼 그녀의 저서 ‘과학과 건강’도 신적 영감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후에 이를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주장과 비판

크리스찬 사이언스도 많은 이단들과 같이 성경의 의 계시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죽음이라는 인간 존재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나는 신묘한 과학

안에서 이러한 진리를 배웠다. ... 나는 신적인 계시와 이성과 증거를 통하여 절대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하였다.” 에데는 자신이 죽음 직전에 받은 계시가 신적인 계시였다는 확실 가운데 자신이 받은 방법만이 기독교와 상설해 버린 치료의 원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다. 이 진리가 신적으로 에데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를 가르쳐 실천함으로 정통교회를 능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다.

과학과 건강

이들의 ‘과학과 건강’의 기본적인 원리는 극히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진리, 영, 신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약이나 죄 같은 것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며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질병도 하나의 정신적인 것일 뿐, 일종의 망상이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자로 하여금 그들이 실제로 병든 것이 아니라고 인식시키고 중환자보다 가장적인 것으로 인식시키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죽음이라고 하나의 환상이라고 오도하고 있습니다.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크리스찬 사이언스를 통하여 질병과 죄를 치료하기 위해 내려오신 모든 영감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상적인 진리이다. 그리고 예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심어 준 인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리스도도 영을 두 개의 실제로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나누어 서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데에 이들의 이원론적인 사고 개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합니다. 이들이 예수의 참된 성육신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물질을 부

인한 그들의 영지주의적인 이단성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의 부인은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고난 사역과 부활을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더에서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서로 다른 존재로 갈라 놓은 곳은 없으며 그분의 참된 인성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예수의 성육신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의 확고한 신앙고백이기에 합니다.

구원론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죄의 실재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단순한 인간의 착상상태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서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속죄의 은총이 이들의 구원론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 평가와 결론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정통교회를 거의 부정하기 때문에 기독교도 과학도 아닌 거짓종교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자명하게 부인하는 영지주의적인 가원설의 현대판 모델이며,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므로 두 개의 다른 실재를 주장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신유와 정신적인 치료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말세에 나타난 사단의 후예이며 영혼의 사망문인을 인식하고 우리 성도가 언제나 조심해야 할 집단입니다.

신앙성당에 대하여 깊이있는 글들이 모인 지면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읽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글쓴이로서도 많은 시간, 우리 교역자들과의 지면을 위하여 글을 통해 담담히 드로고 하고 있습니다.

지체들 소식

▶ 영아부 /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 받으시고 사흘만에 살아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기념기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예배 드림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만나는 친구들끼리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영아부에 참석치 못한 아가들에게까지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송혜경 통신원)

▶ 유치부 / '찬양,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하여라' 봄바람과 더불어 시작한 4월 첫주에는 부활 잔송으로 유치부실이 더욱 활기에 찼습니다.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보람이린 성경에 관한 전도사님의 말씀을 이 봄치려된 조용히 축복하시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적시는 귀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인 오늘은 부활절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의 마음에 담긴 귀한 예수님, 그 진한 십자가의 피와 사랑, 그리고 열린 심장의 영원한 승리가 하얀 도화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고백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조인혜 통신원)

▶ 유년부 / 3월 29일은 학부모 초청 좌담회가 열린 날.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유년부 교사실은 좌석 배지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날 행사의 귀빈으로 학부모님들을 모시기 위한 자리

배치 때문이었다. 무장 이정우 장로님의 행사의 취지 설명과 인사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좌담회에서는 각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각 가정의 신앙 교육 사례를 발표하였고, 현장 체험에 의거하여 어린이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현 초등 학교 교사인 조권실 집사님께서 역설하였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유년부에서 마련한 식사를 나누면서 자녀들의 영적 교육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자신들의 가정 교육을 되돌아보고 서로 격려받기도 했다. 지도 김영미 전도사님의 교회학교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유년부에서는 이 좌담회를 위해 학부모님들에게 30문항의 설문지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좌담회의 목적과 같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어린이의 신앙 교육 및 인성 교육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보고 노력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강현주 통신원)



▶ 중등2부 / 봄을 알리는 노란 개나리가 이곳저곳을 수놓고 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치에 뒤덮인 볼품없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던 가지마다 노랗게 손짓을 하며 살아 있음을 알린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 아이들과 섞여 있을 때는 그다지 구별되지 않는 아이들. 이 세상 아이들이 보다 많이 부모님의 눈물을 요구하는 아이들이었다. 우리들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쩌면 10년, 20년 전의 모양이 먼지 뒤덮인 가지인 우리 자신들을 보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따금 그렇게 힘들어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라. 지난 주에는 찬양대 지휘자가 새로 오셔서 처음 지휘봉을 잡고 당당히 찬양을 이끌어 주었다. '적음과 죄악을 이기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섰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같은 강한 눈빛을 읽은 탓인지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 역시 달라져 있었다. (나성애 통신원)

▶ 중등3부 / 지난 3월 29일 중등3부 교사실에서 교사와 학부모님 80여명이 모여 학부모 초청 기도회를 가졌다. 엄필성 장로님의 사죄와 사죄되어 이준경 강도사님의 말씀, 사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던 설문 내용에 대한 토의 및 질문, 기도회, 답답 교사와의 개

별 상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도회를 위해 중등3부에서는 학생들 대상으로 미리 학부모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회 활동, 진학 문제, 교육 관계, 이성 관계 등의 소항목에 대해 평소 부모님께 이야기 하고 싶었던 자신의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진학을 앞둔 학생으로서, 가장 내성적인 아들, 딸로서, 또 기독교 청소년으로서 겪는 그들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교사들간의 개별 상담 및 기도가 이뤄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외에도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부모가 교사에게 바라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 고등부 / 교사를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봉사를 희망하는 성도는 고등부 교사(구내전도) 230명, 입문전 장로, 구제관(집사)으로 문의하십시오.

▶ 시립부 / 장애인에 위한 무료 통신 교육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협회 강당(보라매공원내 위치, 전화/841-2077)에서 4월 27, 5월 15, 6월 26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실시된다. 강의 내용은 'PC통신'이며, 대상은 장애인, 장애인 가족, 기관 종사자이다.

탐방 - 차량관리부

봉사 정신이 살아 있는 곳

주차시엔 차량관리부원의 지시 따라주길 당부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누군가 등불을 켜는 수고를 해야 하고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한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공동체가 조화롭게 유지되려면 질서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의 질서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요즘은 이들을 가나 자라와 홍수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예배를 위해 떠나는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 비바람을 무릅쓰고 참관 봉사자들의 모습이 차량관리부이다. 사무실은 지하 주차장 입구다. 이곳에는 찬란한 열매도 없고 존경스런 초청이나 남들이 일도 없는 명예도 없다. 오직 봉사 정신만이 살아 있다. 이 부서는 한 명의 부장님(김영진 장로님)과 세 명의 차장님(이교는 10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79명의 봉사 요원들이 봉사하고 있다.

차량관리부에서 하는 일은 주일의 차량 관리가 주된 임무이며 때로 기도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그곳까지 가서 차량 관리를 한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근처에 숨어 있는 불량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교차 주변의 폭력을 수방하여 예를 쓰기도 한다.

교회의 일회 주차 수를 능력은 약 1,700대이다. 그러나 턱부족이다. 특히 주일 2부, 3부 예배시에 그러하다. 그리

고 봉사 인원도 많이 부족하다. 150명 정도가 필요한다 확보된 인원은 그 반밖에 되지 않는다. 감당해야 할 차량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주일은 하루 종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바쁜 중에도 매 주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부원들은 주일 아침 9시 30분부터 갖는다. 부원들은 함께 영적 성장을 도모한다. 그리고 일년에 한 번,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수련회를 한다. 또 자체 조직인 사조직을 구성하여 봉사부원들의 애정사를 돌본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한변쯤은 이분들과 같은 바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들의 고충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부족한 주차 공간에 넘치는 차량,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성도들의 인정, 예기치 않은 위험, 자차 등기 되는 원인과 항의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부서의 모든

분들은 이곳을 자기 수양의 공간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하는 것은 헬기내지 말고 친절하자는 것이다. 이 일을 부원들은 참고 또 참으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차량관리부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주차시에 최소한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 우선 주차할 때는 전적으로 차량관리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차량관리부원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가장 적절한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차량 배치를 하기 때문이다. 또 성도들은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해야 한다. 예배가 시작되고 차들은 끊임없이 밀려 오는데 그런 차들일수록 차량관리부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금한 마음에 아무래도 주차하고 예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가져온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사는 성도들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다. 또 늦게 나갈 차량은 반드시 차량관리부원에게 이야기하여 합당한 자리를 배정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전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회전하는 규칙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양보의심 가지고 차량관리부원의 지시에 잘 따른다면 부족한 공간에서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당 앞 비어 있는데도 주차를 못하게 한다고 오해하는 성도들에게 일한다. 그곳은 임시주차장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전용주차장이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교회에 오면 언제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본당 앞을 비워 놓는다. 그러나 부득이한 주차도 그곳에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예배가 끝나면 빨리 자리를 비워 두어야 한다. 그리고 주일은 교회 주변의 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구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일 도로의 주차도 가능하다. 교회 근처의 한 공간에 주차하고 조금 걸어서 예배를 보는 것도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 방법이다.

추운 날은 주차서 더운 날은 더워져서 빨리 따뜻하고 시원한 곳으로 피하게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안부를 위해 수고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눈여겨 보시리라. 그리고 천국에서 갓이 주시리라. 이 땅에서 흘리는 차량관리부원들의 진땀을. (글/정영희 기자, 사진/이윤구 기자)



교회소식

금주의기도제목

1.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경관 위임목사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고난통해 자기 부정의 신앙 확복하게 하시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3. 김경철의 내피생애를 실천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돌이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장학생들이 하나님과 사랑 안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원이 되게 하소서.
4. 주간성경공부, 교구별 성경훈련, 남성도 구약모임, 장로부 총원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교제 가운데 부흥케 하시고 충현의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5. 다음 주일예배 전 찬양을 담당하는 임나 누엘 여장종성(2차), 테너 정학주(할렐루야 찬양대 솔로리스트, 3부), 소프라노 배행장(할렐루야 찬양대 솔로리스트, 4부), 소프라노 이혜은(가브리엘찬양대 솔로리스트, 5부)들이 영으로 일하게 하소서.
6.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있게 참여 하소서.
7. 새벽기도회와 금요교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8.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 알림

1. 오늘은 부활절 / 오늘 I, II, III, IV, V부예배 시 부활절 전례를 드리기 바랍니다.
2. 부활절 전례의 밤 / 오늘 찬양예배 있습니다.
 - * 찬양: 가브리엘찬양대
 - * 찬양곡: 주 날아올라 십자가 외
3. 제2차 학습 및 세례식 안내 / 학부 및 세례, 개종, 유아, 유아예배를 받을 성도는 26일(주일) 까지 구교당장 교역자에게 신청하고, 아래 일정에 따라주시 바랍니다.
 - * 교육: 5월 3일(주일) 15:00-16:50, 5월 10일(주일) 15:00-15:50
 - * 분담: 5월 10일(주일) 16:00-16:50, 각교구별 장소
 - * 교육장소: 교육관 314호(학습), 307호(세례), 교육관 309호(유아세례)
 - * 학습, 세례: 5월 17일(주일) 찬양예배시, 본당
 - * 유아세례: 5월 17일(주일) 15:00, 갈릴리움
 - * 유년성도회 / 21월회 청교도소에서 부흥집회를 갖습니다. 위하여 기도를 주시길 바랍니다.

● 모임

1. 정로효목사제교회 / 14월회 제4회 주, 교육관 100호
2. 전도선교회 월례회 / 오늘 15:00, 선교관 405호
3. 봉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사무국 회의실
4. 실업인전도회 - 금요일 / 교점전교회
5. 실업인전도회 목요일 / 매주일 15:30, 사랑부실
6. 실업인전도회 목요일 / 16월회(교) 새벽기도, 주, 침입인전도회실
7. 베드로 - 요한 14 기도회 / 18월회, 1600, 목동 원촌중학교 운동장
8. 2교구 협의회 / 14월회(월) 18:30, 노아식당
9. 10교구 남성교회 모임 / 18월회(월) 17:00, 김용석 집사대(농복합, 928-3205)
10. 교육훈련원 월례회 / 17월회(월) 18:00, 만나를
11. 안수집사회 월도성경기도 성경공부 / 13월(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12. 권사회 제2회 월례회 / 15월(수) 1부예배, 사랑부실

● 남녀전도회

1. 바울 1 / 18월(월) 18:30, 다보장(3453-9711)
2. 바울 10 / 18월(월) 18:00, 강동학 집사대(928-3205)
3. 바울 14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1호
4. 베드로 1 / 18월(월) 19:00, 제물포청담동교회, 부부모임
5. 베드로 8 / 18월(월) 18:30, 강령학 집사대(452-3280)
6. 베드로 10 / 18월(월) 15:00, 도봉산 19번 종점
7. 베드로 11 / 오늘 교구모임 후, 영아모임
8. 베드로 12 / 19월(수) 주일 15:00, 교육관 412호
9. 베드로 14 / 18월(월) 19:00, 전촌배 집사대(647-6707)
10. 베드로 15 / 오늘 교구모임 후, 베다니홀
11. 베드로 16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12. 요한 5 / 18월(월) 19:00, 탁아부실
13. 요한 14 / 19월(수) 주일 19:00, 이흥복 집사대(881-8988)
14. 한나 1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15. 한나 2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16. 한나 3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17. 한나 4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18. 한나 5 / 오늘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2층
19. 한나 6 / 오늘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20. 한나 7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1. 한나 8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414호
22. 한나 10 / 오늘 교구모임 후, 영아모임
23. 한나 11 / 오늘 교구모임 후, 베다니홀
24. 한나 12 / 오늘 3부예배 후, 교육관 212호
25. 한나 14 / 오늘 교구모임 후, 만나를
26. 한나 15 / 오늘 교구모임 후, 베다니홀
27. 한나 17 / 오늘 14:40, 교육관 307호
28. 에스더 4 / 14월(월) 10:00, 종관기전(당 앞 광장)
29. 루디아 1 / 14월(월) 10:00, 교육관 212호
30. 루디아 3 / 14월(월) 11:00, 교육관 109호
31. 루디아 4 / 16월(월) 11:00, 이흥복 집사대(534-5256)
32. 루디아 9 / 21월(월) 영성훈련 후, 기도원
33. 루디아 13 / 16월(월) 11:00, 은명숙 성도(658-8850)
34. 루디아 14 / 14월(월) 11:00, 이흥복 집사대(782-2537)
35. 루디아 15 / 오늘 교구모임 후, 베다니홀
36. 루디아 16 / 14월(월) 10:30, 축산관 집사대(81-1265)

37. 마리아 1 / 14월(월) 10:30, 사랑부실
 38. 마리아 3 / 14월(월) 11:00, 사랑부 교사실
 39. 마리아 10 / 14월(월) 10:30, 막내동 집사대(900-0134)
 40. 마리아 11 / 19월(수) 주일 12:20, 유아부실
 41. 마리아 12 / 14월(월) 10:30, 도봉산 집사대(3159-8317)
 42. 마리아 14 / 14월(월) 10:00, 노인회 집사대(618-6445)
 43. 마리아 15 / 오늘 12:15, 유아부실
- 결 혼
1. 유지철군(최정순 권사의 아들, 제17교구)와 황현주양(이성숙 전도사의 딸, 제19교구) / 14월(목) 12:00 갈릴리움
 2. 이형준군(장명숙 권사의 아들, 제7교구)와 하수연양(이영복 씨의 딸, 제19교구) / 16월(목) 12:00 갈릴리움
 3. 정태민군(장관희 성도, 이숙원 성도의 아들, 제19교구)와 신신미양(안승현 집사, 김복자 집사의 딸, 제10교구) / 16월(목) 14:00 갈릴리움
 4. 권혁준군(권철 안수집사, 오희숙 집사의 아들, 제9교구)와 이슬희양(이현직 씨, 최신자 씨의 딸) / 17월(목) 13:00 갈릴리움
 5. 박재찬군(박강진 집사, 은혜배 권사의 아들, 제19교구)와 한진희양(한윤숙 집사, 이경숙 권사의 딸, 제19교구) / 18월(목) 12:30 갈릴리움
 6. 정해룡군(오혜자 씨의 아들)과 윤은아양(윤해수 성도, 김진남 집사의 딸, 제3교구) / 18월(목) 15:00 가대재침묵 2층

● 별 세

1. 최순금 씨(노영형 집사 모친, 제5교구 양재1구역) / 3월 31일 밤세, 5일 장례
2. 마수일 안수집사(마성창 장로 부친, 김춘희 권사 사부, 제11교구 장종2-2구역) / 4월 1일 밤세, 7일 장례
3. 김무성 성도(요정구 성도 남편, 제11교구 보광구역) / 7일 밤세, 9일 장례
4. 김용익 성도(요정구 성도 남편, 제11교구 필동2구역) / 8일 밤세, 10일 장례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98	서완봉	1	청년2부		710	조영경	19	대학부	조영주(19)
699	조운숙	1	청년2부		711	박미영	19	대학부	
700	김미진	2	청년2부	김다수(2)	712	노미리	19	대학부	강철(1)
701	이광설	4	요한	강미숙(4)	713	이영미	19	청년1부	
702	정승정	6	베드로		714	전정재	19	청년1부	
703	정내영	6	마울		715	박태윤	19	청년1부	
704	박용국	7	마울		716	정미정	19	청년1부	
705	조주은	10	청년2부	김신자(10)	717	송지훈	19	청년1부	
706	김종홍	15	베드로	이진규(7)	718	권영탁	19	청년2부	
707	김남일	15	청년2부	정경희(14)	719	유종영	19	청년1부	
708	김희식	16	마울	박재민(15)	720	송재상	19	청년1부	
709	김금자	16	에스더	박재민(15)	721	강한옥	19	청년1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땅콩 한 자루

한 수경
(집사, 153구)

시골에서 땅콩 농사를 지었다고 땅콩 한 자루를 보내왔다. 전혀 바라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이 배달된 것이다. 그런데 자루를 열고 보니 땅콩 추수 후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담은 자루가 잘못 왔는지 온통 쓰레기만 한 자루다.

다 버려 버릴까 하다가 꺼내 놓고 땅콩을 골라 주워담으니 한 바가지 정도 되었다. '아니 사람을 어찌 보고 ... 원할, 누가 땅콩 달랬나?' 그냥 땅콩 한 바가지만 왔으면 감사했을텐데 커다란 한 가마니들이 자루를 받은 후에 쓰레기에서 골라 얻은 땅콩을 놓고 감정의 파도가 뒤치미 순간 감동이다, 땅콩도 문제 아니었다. 왜 그런 물건을 보냈느냐고 따져야 하나 어쩌나. 그렇게 난감할 수가 없었다.

온통 땅콩으로 인해 상한 심령 때문에 평안치가 앞

았다.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누구 땅에 농사지으면서 ... 하는 순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가슴을 치며 들려오는 소리, "너는 내 것을 가지고 나에게 거 어떤 것을 주었느냐?"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재물, 쓰고 남은 ... , 쓰고 남은 ...'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다. '나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간 하소서, 제가 그렇게 주님을 대접했나이다. 최선, 최상의 것은 언제나 나의 것이었고, 쓰고 남은 것을 주님께 드렸나이다.' 눈물의 고백 후 쓰레기 땅콩 한 자루를 받은 선물에 너무나 깊고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4월 19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2부예배

임나누엘 여장종성(임나누엘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
- 나 주의 도를 행자(찬 349장) - 나 주의 자비로써 주여
- 빈들의 마른 골짜기(찬 172장) - 나

◆ 3부예배

테너 정학주(할렐루야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
- 영광의 왕께 다신 31장) - 나 주를 믿(찬 331장)
- 빈들의 마른 골짜기(찬 172장) - 오 신실하신 주(찬 447장)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 40장)

◆ 4부예배

소프라노 배행장(할렐루야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
- 주께서 다시이전 길 - 오 노래를 구제주(찬 446장)
- 생명의 양식 - 아 하나님은 은혜로(찬 410장)

◆ 5부예배

소프라노 이혜은(가브리엘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
- 생명의 양식 - 주 나를 믿(찬 478장)
- 구와 함께 나 죽었으니(찬 465장)



모압에 대한 경고 (1)

(이사야 15:1-9)



김창인 목사

“바로 울어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고, 결심의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억울해도 참으면서 바로 올린 잠시 후 그 눈물이 건하고 영원히 웃게 됩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 고지에 위치한 나라로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큰 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모압이라는 그들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본론은 하나님은 모압 나라에 경고하신 말씀으로 그들이 멸망한 모습이었으나 치참한가를 보여 줍니다.

1. 모압이 멸망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까

(1) 하루밤에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까

“... 하루 밤에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루 밤에 ...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1절)

‘하룻밤’이라는 말씀이 두 번 거듭 나오는 것은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오래 세월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하룻밤에 멸망이 도실 것입니다.

(2) 모압의 수도와 그 요새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까

“... 모압 같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 모압 같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1절)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모압의 왕이 사는 큰 수도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모압 길’은 수도를 지키는 요새 지역입니다. 그곳을 지키던 요새가 망하여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3) 온 나라가 귀신당이 있던 자리에 올라가서 울게 되겠다고 경고하였습니까
“그들은 바닷과 다른 산강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브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끊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 걷는 베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2, 3절)

바닷과 다른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당이 많은 곳입니다. 모압의 두종교 성읍인 느브와 메드바도 함락당하되 죽다가 남은 자들이 이곳으로 달라고 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물은 어떠한 눈물입니까? 이 눈물은 세 가지 면에서 불행한 눈물입니다. 첫째로, 원한이 눈물입니다. 둘째로, 저주의 눈물입니다. 셋째로, 영원토록 계속되는 눈물입니다.

신자에게는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결심의 눈물, 인내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모압 백성에게는 참된 눈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눈물이 없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없고 바로 살아 보겠다는 결심의 눈물이 없고 인내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못된 것을 하면서 웃었고 악자를 억울하게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울어야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4) 전사들의 시체가 겹쳐 싸울 생각을 못하게 되겠다고 경고하였습니까

“헤스본과 엘알라네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아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4절)

수도를 포 함해서 주요 성읍들이 파괴되자 모압 전역에서는 통곡소리가 천지를 뒤덮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쟁 준비를 하며 훈련을 받던 모압 군인들이 사기가 꺾이고 가슴이 떨려서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2. 모압의 멸망에 관한 경고들 중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 도다” (5절)

모압이 비참하게 멸망할 경고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까.

모압은 유대 민족과는 원수이지만 이사야는 비록 그들이 자기들과 동등한 피조물이며 아브라함의 친척 롯의 후손인 것을 마음 아파하였습니까. 또한 그 멸망의 잔을 자기들이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였습니까.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원수가 망할 때에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면 그가 망하던 그 멸망의 재앙이 내 집으로 찾아 들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무방하게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망합니다. 육신은 망하며도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수가 망할 때에 기도하면 내가 당할 재앙까지 없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3. 모압 백성이 피난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까

(1) 귀인들이 멀고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도망합니까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솔리사라고 도망하여 울며 루트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5, 6절)

‘귀인들’ 즉 장관, 국회의원, 의사들과 같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소알, 에글랏 솔리사, 루트, 호로나임, 니르림 등지로 도망을 갑니다. ‘소알’은 모압의 제일 남쪽에 있는 땅이고, ‘에글랏 솔리사’는 3년된 황소라는 뜻인데 3년된 황소가 힘이 있는 것처럼 잘 훈련된 군인이 총집결해 있는 곳입니다. ‘루트’는 모압과 소알 사이에 있는 굴이 많은 곳이며, ‘호로나임’ 도 산에 굴이 많아서 피난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니르림’은 모압 사람들이 마시는 물의 수원지입니다. 니르림에서 흘러오는 물을 마시고 농사를 짓는데 이 물이 말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망하는 백성은 전쟁으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결과인 가슴이 들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2) 귀인들이 재물을 챙겨 가지고 예뻐 땅으로 도망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루 시내를 건너리니” (7절)

악자를 억울하게 하면서 쌓아 두었던 재산과 아가워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쌓아 두었던 재산을 살고 가지나 마자가 없어서 예뻐하고 경계인 버드나루 시내를 웃을 견고 재물을 등에 지고 가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3) 피가 나도록 힘든 도망길을 갑니까

“다른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9절)
도망을 가다 보니까 다른 시냇물이 흘러 내려 가는데 그 물에 피가 섞여서 시냇물입니다. 이 피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피이기도 했지만 귀인들이 재물을 짊어지고 도망가다 부딪혀서 터진 발로 버드나루 시내를 건너다 터진 상처에서 흘러나는 피가 시냇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4) 도피하여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더 무서운 사자가 달려들니까

“...그런지라도 내가 때문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니” (9절)
피를 흘리면서 다른 물을 건너 도망을 가서 ‘이제는 살았구나’ 했더니 더 무서운 사자가 달려들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같은 백성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뽐난다. 교만쟁이가 심판의 매를 맞으면 세상에서도 피난갈 곳이 없고 죽으면 그만이었다고 생각하여 죽고 보니 더 무서운 지옥불이 기다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고를 듣고 멸망하기 전에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합니다. ‘멸망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사랑의 충고로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멸망은 하룻밤 사이에 온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로, 바로 울어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고, 결심의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억울해도 참으면서 바로 올린 잠시 후 그 눈물이 건하고 영원히 웃게 됩니다.

넷째로, 불의하게 쌓아 놓은 재물과 바로 써야 할 때에 쓰지 않고 인색하게 쌓아 놓은 재물은 환난날에 고통스러운 짐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고통스러운 짐이 되지 않게 되려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아무리 도망을 기도 그곳에서 제일 먼저 저주를 마중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원수가 망할 때에 웃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이 잡히는 것을 배아고 시기하지도 말고 나의 원수가 망하게 되면 그를 살려 달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망해야 할 저주까지 덜어지고 참된 복을 받게 됩니다. 진실한 성도에게는 원수가 없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김성록 목사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6:19-34)

성도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뜻깊고 절실한 것은,

그리고 권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막 8:36).

하나님에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경과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잃기 쉽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의 인생과 돈을 최고라고 여기게 만드는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와 컴퓨터,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들의 공세 앞에서 끊임없이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조작된 기만적인 방법으로 전혀 적절치 못한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보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부와 가치가 중요한 것이라 교세합니다. 하나님없이도 충분히 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길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돈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조차 세상적인 이해관계와 득실 계산이 신앙과 대등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의가 물질적인 축복과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본론 말씀은 경건과 세상적인 이익이 별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따르면 경건은 세상적인 이익과 만족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통과 고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경건은 세상적인 이익이나 손실로 가능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중되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뚜렷하게 분별해 줍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상적인 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자라는 계급에 있어는 나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진리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구절들이 있으나, 특별히 저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빌립보에서 있었던 전신을 통해 말씀에 가르치시는 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를 방문한 사도 바울은 순조로운 상황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모두 만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사도 바울을 찾아 와서 바울과 그의 친구들을 위해 헌신한 것은 전자에 해당됩니다.

반면, 점치는 것을 통해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던 귀신들린 여종이 여러날 동안 바울을 괴롭히는 한 일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이익의 소망이 끊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 억울한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었습니다(19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귀신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그녀가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쟁기는 데 급급한 나머지 악에의 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자라로 관원들에게 끌여갔다가 상판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반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대 하거늘”(19:21절). 주인들의 이기적인 마음은 진실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은 공격의 방편으로 허위 진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금지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으로 보아 그것은 전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 다.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유대인의 종교로 간주하였고, 마침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종의 주인들은 로마인들이 경멸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기세 동등했던 권력을 이용하여 거짓 증거하며 사람들을 동요시켜 바울과 실라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웃을 짓고도 많은 매를 맞은 뒤 옥에 갇혔습니다(22:23절). 발에는 쇠고라 채워진 채 간수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24절).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든다라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 진지라”(25:26절).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는 이토록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몹시 굶주리고 지쳤으며 육신적으로 피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였습니다. 비록 간헐적 휴식은 상처 입고 고단했지만 그들의 심령은 기쁨에 넘치고 자유로웠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드러내는 기도와 찬양은 죄수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명확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미가 하늘과 땅을 움직인 것입니다!

감옥은 결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곳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우리를 향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그리스도의 권능은 그들의 생각과 영혼을 맑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들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기도와 찬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었던 그들의 경배는 참으로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물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갈 줄 생각하여 감속스럽게 모든 상황 앞에서 간수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면하려는 유혹에 빠져 자결하려 했습니다. 실례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그 패배의 이름으로 인해 처음부터 무너져나간답니다. “바울이 크게 소라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28절). 바울은 진심으로 간수

를 보살피려 했습니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간수를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든 어가 무서와 멀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29절).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도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비범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지회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30절).

이때 바울과 실라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31절).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맞은 상자를 썰기고 그의 모든 권속들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습니다(33절).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바울과 실라처럼 행함으로 나타나시는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하였습니다. 그 예배는 하늘나라에 상달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축복을 통해서 그 은혜와 공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뜻깊고 절실한 것은, 그리고 권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 8:36).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충실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잃은 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

장애인주필

장애인 선교

복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박인기(전도사, 에바다부 지도)

당신은 차별을 당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같은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의 인간이 몸이 건강하거나 약한가, 다리가 있나 없나, 눈이 보이나 보이지 않나, 귀가 들리나 들리지 않나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로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롬 3:27)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준으로 인간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장애인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인든 비장애인인든 신체적 장애에 대해 좋다 싫다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눈먼 바리새교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막 10:51)고 물으셨습니다. 결과만 보는 사람은 "당연히,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무엇을 원하느냐

고 묻고 있습니다. 맹인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온전한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심지어 베테스다 못가에서 38년간이나 누워 있는 사람에게도 "네가 닳고자 하느냐"(요 5:6)고 물으십시오. 장애인이라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예배와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때는 수화예배식이 1층 왼쪽 뒤편으로 옮겨집니다. 그 자리에는 원로 목사님도 오시고 원로장로님도 오십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소리내어 찬송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소리 없이 손으로 부르는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불편하다 할지라도,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지체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도 복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사랑부에서 봉사하며

영혼을 올리는 사랑부 찬양대

이선옥(집사, 사랑부교사)



할렐루야!

사랑부를 섬긴 지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돌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반대가 되었다.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학생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우리 사랑부는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곳이다.

소리를 지르고 팔뚝팔뚝 뭉치며 대굴대굴 뒹구는 학생들이 예배시간이면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간다. 목사님 말씀에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들,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고 그리워하는 학생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본다. 지도 목사님과 부장 장로님을 비롯한 신성남들은 영혼들을 맡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인물이기도 보살피고 있다.

우리 사랑부는 1995년 7월 17일 16명으로 찬양대를 시작했다.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주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그 이러한 찬양보다도 더 큰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신다.

이번 장애인주일을 맞이하여 총현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그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사랑부에서 정성을 다한 찬양을 준비했다. 4월 19일에는 아 할미니가 주신 예쁜 바니피를 하고 봉당 뜰에서 학생들과 신성남들이 찬양을 드린다. 장애인부서 사랑부를 일리고 전도도 할 계획이다. 이 대이전까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큰 목소리도 찬양을 드릴 것이다. 구석구석 들리도록...

끝으로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지휘자 선생님, 만주자 선생님, 머리머리를 보내 주신 할미니가 감사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교회 봉당 2층 왼쪽에는 커다란 TV 모니터 두 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니터에서 주일 3부예배 때 수화통역과 자막이 나옵니다. 찬송, 기도,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까지도 모든 음성은 수화로 통역되고 문자로도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아무런 지장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에도 에바다부가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이 성경 공부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에바다부의 성도들이 국내의 장애인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지체된 사람이나 학업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사랑부가 설치되어 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선교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특별한 다른 다만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회에서는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장애인 복지의 목표로 두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는 말씀에 따라 장애인에게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환웅이 되면 안보이고 안 들리며 걷지 못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에바다부에서 봉사하며

작은 불꽃 하나

이영아(에바다부 학생부 교사)

조용할 것만 같은 에바다부 예배실. 모두 손으로 말하니가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곳은 더 힘겹다. 밝은 웃음소리, 아이들의 장난, 그리고 간절한 기도소리. 눈을 뜨고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일반인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미래에 대해 고민 많았던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보게 된 수화통역하는 모습. 짧은 순간 스쳐갔지만 그 모습은 내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농아인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 에바다부 수화교실의 문을 두들겼고, 학생만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다. 처음 에바다부에 가서 만나 함께 성경공부했던 제자만 지체들이 따듯하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이제 짧지도 길지도 않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일은 대학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대학부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게 해 주신 일이다.

그때에도 수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이런 학문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오랜 시간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모인. 대학부에는 작은 열매, 이한 마음으로 함께 한 사람들이 있다. 아들람, 그리고 오규원 선배로부터 나로 이어지는 수화교실이 5회계를 맞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어갈 후배들이 있을 것이다.

때론 오기심으로 찾아온 이들도 있었고 수화만 알 뿐 농아인을 알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먼 곳에서든 가까이 있든 알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었다. 농아인하고 대화를 하고 싶는데 수화를 하지 못해 너무 답답해서 말이다. 그들의 열심과 농아인을 향한 마음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다. 어느 선교를 위한 집회에서 만난 농아인 형제의 간절한 기도, 선교를 향한 열심이 있건만 통역자가 없어 포기한 자매, 한 단어를 놓치자 열심보다 충誠된 눈, 대학을 가고 싶지만 일반인들과 함께 시험 보기에 너무 어려워 토요일마다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던 농아인 친구.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다. 부족한 수화통역도 감사하라고 수고했다고는 격려해 주셨던 농아인 성도들. 대학부 수련회에 함께 참여해서 전도여행을 떠났던 농아인들. 나의 통역을 보며 수화교실과 '아연'으로 화답했던 농아인들.

처음 가르쳤던 귀은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의젓한 선배들이 되어 후배를 양육하고 있는 함께 성경공부했던 우리 아이들... 그저 미안하고 감사할 뿐... 그리고 이한 단아들...

처음 수화를 배울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의 말이 생각난다. "세계 열 손가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게 감사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셨다.

5회계를 맞은 수화교실, 배우는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그리고 아들람 친구들, 그리 많은 사람이지는 않지만 스쳐 지나간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 계획하심이 있음을,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 하실 일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때론 힘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묵묵히 기다려 주셨다. 그리고 진정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함께 담당하셨던 것처럼.

